

## [29차 두산아트스쿨: 미술] 컬렉터가 사랑한 세기의 작품들 II

강사: 정윤아 (크리스티 홍콩 Vice President)

1강 사이 톰블리: 당신의 아이는 이렇게 그릴 수 없다 (10/13)

### 강의 개요

어린아이의 낙서를 닮은 그림으로 일반 대중은 물론, 평론가들과 동료 예술가들에게조차 감내하기 힘든 혹평을 받았던 예술가.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미국의 전후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의 반열에 오른 사이 톰블리(Cy Twombly, 1928-2011)가 바로 오늘 강의의 주인공이다. 낙서 같은 그의 그림이 오늘날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한다.

### 1) 교육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톰블리는 열두 살부터 개인 미술 교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 고향인 버지니아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출중한 실력 덕분에 장학금 혜택을 받아 뉴욕에서 미술 공부를 했다. 그곳에서 만난 동료 예술가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 등 당시 많은 주요 예술가들을 배출한 노스 캘리포니아의 블랙 마운틴 대학에도 진학, 1951년부터 1952년까지 수학했다. 여기서 만난 로버트 마더웰(Robert Motherwell)의 소개로 1951년, 뉴욕의 명성 높은 쿠티 갤러리(Kootz Gallery)에서 23세의 어린 나이에 첫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 2) 로마 시기

1952년, 버지니아 미술관의 기금으로 로마를 비롯한 유럽 및 아프리카 여행을 떠났던 톰블리는 귀국 후, 뉴욕과 버지니아를 오가며 작업 활동을 하다가 1957년, 로마로 이주해 그곳에서 만난 이태리 화가와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로마에 정착한다. 아들의 출생을 기념하며, 그의 이름을 딴 <알렉산더의 시대>(The Age of Alexander, 1959-1960)를 제작했는데, 이 연작에서 특유의 선묘와 상징적인 기호들, 서투른 글자체와 숫자 등이 어우러지는 독창적인 양식을 선보였다. 고대 신화와 시, 역사 등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종종 이를 작품 제목에 직접 차용하기도 했다.

### 3) 작품 세계

1952년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이태리, 스페인 등을 두루 다녔고, 이듬 해에 이때 접한 각 지역의 토속 미술을 접목시킨 작품들을 전시했다. 그러나 혹평의 역사는 이 전시부터 시작되

었다. 지나치게 실험적인 작품에 대해 그 누구도 좋게 평가해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드로잉을 그렸고, 의도를 배제한 자연스러운 선 굵기를 위해서 일부러 소등 시간에 깜깜한 방에서 연습하기도 했다. 제대 후, 1957년에는 지난 여행 때 유독 인상 깊었던 이태리 전역을 다시 여행했고, 결국 로마 인근에 정착했다. 이 시기부터 휘갈긴 선과 크레용, 색연필 등을 문질러서 생기는 다양한 형상들이 마치 어린아이의 낙서를 연상시키는 큰 스케일의 그림을 시작하게 된다. 고대 건물의 벽에 새겨진 오래된 낙서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톰블리의 회화는 훨씬 더 서정적인 면모가 강했다.

예술은 경험이라 믿은 그는 로마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사하라, 그리스, 이집트, 터키 등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드디어 1964년, 당시 뉴욕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레오 카스텔리 갤러리(Leo Castelli Gallery)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혹평이 쏟아졌다. 어린애의 낙서만도 못한 형편없는 그림이라는 비난들이었다.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었는지 곳곳한 톰블리도 거의 1년 정도 아예 붓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 혹평을 받은 작품 중 한 점인 <레다와 백조>(Leda and the Swan, 1962)가 2017년 5월 17일,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미화 약 5천3백만 달러(한화 약 647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다.

오랫동안 저평가되었던 그의 예술 세계가 새롭게 평가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였다. 낙서화로 당시 뉴욕 미술계를 사로잡은 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 1960-1988) 같은 젊은 화가들이 톰블리를 영웅시하면서 재평가가 시작된 것이다.

1964년 전시 이후, 약 1년간의 휴식 끝에 다시 작업에 복귀한 그는 향후 자신의 대표작으로 남게 될 '칠판화(blackboard painting)' 연작을 시작하였다.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칠판을 연상시키는 어두운 회색 바탕의 회화라서 붙여진 제목이다. 지중해 풍경이나 역사, 신화에 기반한 하얀 바탕의 즉흥적 서정성이 주를 이루던 이전 작업들과 대비를 이루었다. 침체기 이후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것. 1966년에서 1971년 사이에 제작된 이 '칠판화' 연작 중 한 점, <무제>(Untitled, 1970)가 2014년 11월 12일,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낮은 추정가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미화 약 7천만 달러, 한화 약 853억 원)에 낙찰되어 당시 톰블리 전작 중 가장 높은 경매가를 기록한 바 있다. 동료의 어깨 위에 앉아 울동적으로 나선형을 그리는 화가의 동작을 고스란히 담아낸 이 작품은 직관적이고 변덕스러운 듯하면서도 통제된 선을 통해 순수 에너지와 함께 무한 공간에 대한 확장된 느낌을 자아낸다.

보기에 거칠고 배우지 않은 날 것 같다는 자기 작품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에 대해 그는 "아이 같은" 선이지만 "유치하지는 않다"면서 "아이 같은" 특성은 사실 "흉내 내기 매우 어렵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선 속에 자신을 투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